



즉시 배포용: 2018 년 6 월 30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 피난한 푸에르토리코 가족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중요한 사회 복지 서비스, 주택, 고용 기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100 만 달러 사례 관리 프로그램 설립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를 통해 직업 훈련 및 소개를 지원하기 위한 최대 1,000 만 달러 발표

주지사는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과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 과도적 대피 지원 프로그램(Transitional Sheltering Assistance, TSA)의 확대와 재난 주택 지원 프로그램(Disaster Housing Assistance Program)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 - [여기](#)에서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섬을 초토화한 후 강제로 대피하게 된 뉴욕의 푸에르토리코 가족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연방 임대 지원이 6 월 말에 만료될 예정인 상태에서, 주지사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에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에게 강력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100 만 달러 프로그램을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직업 훈련 및 소개에 최대 1,000 만 달러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연방 정부에 과도적 대피 지원 프로그램(Transitional Sheltering Assistance Program)을 확대하고,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난 주택 지원 프로그램(Disaster Housing Assistance Program)을 활성화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뉴욕은 첫날부터 푸에르토리코와 함께하고 있으며,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로 인해 삶이 바뀌고 집이 파괴된 가족과 개인들을 환영합니다. 연방 정부는 작업이 끝나기도 훨씬 전에 지원을 만료함으로써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을 다시 한번 외면함에 따라, 뉴욕은 푸에르토리코가 이전보다 더욱 강해지고

나아질 때까지 우리의 동료 미국인들이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을 돕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은 푸에르토리코 난민들과 뉴욕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서 지원받는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을 연결하기 위한 100 만 달러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브롱크스웍스 주식회사(BronxWorks, Inc), 캄바(CAMBA), 뉴욕 대교구 가톨릭 자선 단체(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New York), 라이즈보로 커뮤니티 파트너십(RiseBoro Community Partnership)에 분배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난민들이 적절하고 저렴한 주택을 선택하도록 확인하고 임대 지원서를 작성하며 이사와 가구 비용에 대해 보조하고 다른 자원을 얻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Cuomo 주지사의 지시로,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뉴욕주에 있는 피난한 푸에르토리코인들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소개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1,000 만 달러를 조달할 것입니다. 노동부(DOL)는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방 미국 노동부 재해 복구 난민 보조금(U.S. Department of Labor Disaster Recovery Evacuee Grant) 기금으로 최대 1,000 만 달러를 확보했으며, 즉시 100 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DOL)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단체들과 협력하여 구직자들의 기술 프로필을 평가하고 이를 훈련 기회에 연결하며 이들을 뉴욕 기업들의 공석에 추천하고 이용가능한 다른 서비스와 연결할 것입니다.

게다가 Cuomo 주지사는 많은 가족이 여전히 푸에르토리코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택이 없기 때문에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과도적 대피 지원 프로그램(Transitional Sheltering Assistance Program)의 6 월 30 일 기한을 연장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슈퍼스톰 샌디(Superstorm Sandy)를 포함한 수많은 자연재해 이후 어려움에 부딪친 가족들에게 중요한 자원이었던 재난 주택 지원 프로그램(Disaster Housing Assistance Program)을 활성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하에, 뉴욕주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이러한 초도화된 환경에 대처하는 것을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중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과 가족들은 스스로 재건하고 그들의 삶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 덕분에 뉴욕주는 이러한 강력한 폭풍의 파괴로부터 피난해야 했던 사람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난한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주지사가 합류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주 노동부(State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작년 허리케인의 초토화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기금 덕분에 우리의 새 이웃들을 우리 주에서 제공해야 하는 기회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고용에 연결하려는 노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임시 및 장애 지원국(OTDA) 사례 관리 프로그램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 직업 훈련 및 소개 서비스, 이메일 nyspio@otda.ny.gov 또는 전화 1-800-342-3009 에서 영어 및 스페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과도적 대피 지원(TSA)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연방 임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인 주택 지원을 받기 위해 지역 [사회보장서비스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난민들은 주택과 음식을 포함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저소득 뉴욕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 초, 주지사는 뉴욕주립대학교 이사회(SUNY Board of Trustees)와 뉴욕시립대학교 이사회(CUNY Board of Trustees)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허리케인 어마(Hurricane Irma)로 인해 피난한 학생에게 거주민(in-state) 학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주민 학비 승인 연장으로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학생들은 2018-2019 년 학년동안 낮은 비용으로 주가 운영하는 대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고 가족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폐허에서 복구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2018 년 봄 학기에 뉴욕주립대학교(SUNY)의 피난 학생들 약 50 명과 뉴욕시립대학교(CUNY)의 피난 학생 200 명이 거주민(in-state) 학비율을 이용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의 뉴욕의 활동

2017 년 9 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간 후, Cuomo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를 4 차례 방문하면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중요한 자원을 계속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뉴욕은 즉시 엠페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을 설립하여, 궁극적으로 뉴욕주 전 지역 13 곳의 기부 사이트에서 받은 최소한 4,400 개의 화물 운반대 분량의 구호 물자를 배포했습니다. 뉴욕주는 또한 전력 복구 및 전력망 안정화를 돕기 위해 전력회사 직원 및 전기 전문가 수백 명을 포함하여 1,000 명이 넘는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달에 주지사는 여름 내내 지속되는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을 위해 자원

봉사자들을 처음으로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름 학기 동안, 약 500 명의 뉴욕시립대학교(CUNY)와 뉴욕주립대학교(SUNY) 학생 자원 봉사자들과 수 십 명의 숙련된 자원봉사 작업자들이 주택을 청소, 복원, 재건하기 위해서 비영리 재건 단체인 올핸즈 앤드 하츠(All Hands and Hearts), 하트 9/11(Heart 9/11), 네차마(NECHAMA)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2 주간 배치되며 집중적인 응용 학습 커리큘럼을 수료하고 대학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유니세프(UNICEF USA)는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기부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사망자 수가 현재의 공식적인 추정치보다 70 배나 많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의 분석에 대한 대응으로, Cuomo 주지사는 Nydia Velázquez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연방 정부의 대응, 사망자 수, 모든 과실 또는 부실한 대응, 더불어 재난 대비, 대응 및 복구에 대해 즉시 조사하는 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은 푸에르토리코에 필요하며, 푸에르토리코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방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12 월에 Cuomo 주지사와 Rosselló 주지사 및 뉴욕 연방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은 더욱 강력한 상태로 푸에르토리코가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944 억 달러 규모의 연방 원조 패키지를 요구하는 빌드 백 벡터 평가 보고서보고서(Build Back Better Assessment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주택, 전력 공급망 및 복구력, 농업, 기타 요소 등을 비롯하여 투자가 필요한 특정 부문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공 안전 및 최초 대응을 위해 4 억 8,700 만 달러, 장기 복구 관리에 90 억 달러 등, 필요한 기금 총액은 944 억 달러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 중인 복구 및 구호 활동과 지원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버진 아일랜드를 위한 주지사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구호 및 피해 복구 활동(Empire State Relief and Recovery Effort) [웹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